



| | | | |
|-------|-----------------------|-------|----------------------------|
| 보도 일시 | 2021. 1. 28.(금) 10:30 | 배포 일시 | 2021. 1. 28.(금) 09:30 |
|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장 김승태 (044-215-2770) |
| | | 담당자 |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및 양재 하나로마트 현장방문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8(금) 09:00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❶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 ❷ 석유류·내구재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¹⁾(산업부, 제목만 공개)
- ❸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경쟁촉진방안(공정위, 제목만 공개)

□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IMF도 지난 1.25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2년 선진국 물가전망을 작년 10월 전망(2.3%) 대비 1.6%p 상향한 3.9%로 전망하여 올해도 높은 물가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는 작년에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연간 2.5%)을 기록했으나 올해 국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물가안정에 총력대응 중

* '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국)4.7%, (캐나다)3.4% (독일)3.1% (스페인)3.1% 등

- 특히 1월은 연초 가격인상, 설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함
- 정부는 작년보다 1주 빠른 명절 3주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1.6일) 하고, 물가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20.4만톤)을 추진하는 등 1월 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하고 있음

⇒ 이에 금일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설 명절 직전 성수품, 쌀 등의 가격·수급동향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함

1) 2,3번 안건은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산업부·공정위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

- 이 차관은 설 민생대책에서 발표한 16대 성수품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농식품부·해수부에 설 연휴에도 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을 주문함
- 특히,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해 물가안정방안을 상정한 산업부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가 추가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공정위에는 타부처 업계간담회에 참여하여 정보공유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함
- 회의에 이어 이 차관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 및 쌀 등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함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2.1.28.(금) 10:00~10:30 ▪장소: 서울시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
▪참석: 기재부 1차관, 농식품부·해수부 국장, 농협경제지주 대표, 수협중앙회 이사 등

- 현장점검 결과 2주전 가락시장 방문시보다 성수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17개 품목(16대 성수품 + 쌀) 중 사과를 제외한 16개 품목이 1.5일(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직전일) 대비 가격 하락함
 - 사과는 전년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나, 명절을 앞두고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면서 1.5일 가격 대비 소폭 상승함
- * 사과 가격(1.27일 aT가격 기준): (전년비)△17.1%, (1.5일 대비)+5.4%
- 이 차관은 성수품 공급확대 및 할인행사 개최에 적극 동참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를 격려하고, 공급확대 및 할인행사가 종료되는 설 이후에 급격한 가격상승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 [붙임] 1.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 발언
2. 주요 품목 가격 동향(16대 성수품 + 쌀, 1.27일 기준)
3. 1.5일 이후 「16대 성수품 + 쌀」 가격 동향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승태 (044-215-277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홍 (lsh0622@korea.kr) |
| <공동>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형식 (044-201-2231) |
| | | 담당자 | 서기관 | 손경문 (philoson@korea.kr) |
| <공동>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태훈 (044-200-54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현 (jiihyun77@korea.kr) |
| <공동>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윤성혁 (044-203-421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수 (pss3146@korea.kr) |
| <공동>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황원철 (044-200-430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현 (pars@korea.kr) |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부처 여러분들과
회의와 현장방문을 준비해주신
농협경제지주, 농협유통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초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크게 오르면서
'14.10월 이후 최고수준(1.27일 \$87.8/B, 두바이유)을 기록하는 등
주요기관의 1분기 전망수준(70불대 중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25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2년 선진국 물가전망을 작년 10월 전망(2.3%) 대비
1.6%p 상향한 3.9%로 전망하는 등
올해도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미국 등 주요국²⁾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연간 2.5% 상승)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국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물가안정을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총력대응 중입니다.

2) '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국)4.7% (캐나다)3.4% (독일)3.1% (스페인)3.1% 등

특히 1월은 연초에 제품·서비스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전월비 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은 달이며,
설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제심을 가지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20.4만톤)하는 등
1월에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가격 인상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에 부처별 소관분야 업제간담회를 다수 개최하였으며,
2월에도 가격인상을 자제 요청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가공식품·외식 등 업제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개별부처 업제 소통시 공정위도 참여하고
업체간 가격·물량 등 민감 정보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전 개최되는 세 번째 현장 물가관계차관회의로서,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16대 성수품과 쌀의 공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 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 ② 「석유류·내구재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③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경쟁촉진방안」을
경제팀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 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16대 설 성수품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일일점검 중입니다.

1.27일 기준 16대 성수품 누적 공급규모는 21.8만톤으로
당초 공급계획인 19.1만톤 대비
114.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성수품 공급 마지막 날인 오늘(1.28일)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여
모든 성수품이 계획대비 초과 공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2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590억원 중
40% 이상인 250억원을 설 기간 중 집중 투입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개 품목의 최근 가격 동향을 보면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바로 전날인 1.5일 가격 대비
1.27일 기준으로 사과를 제외한
배추, 무,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대추, 쌀, 수산물 6종 등
16개 품목³⁾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3) 배추, 무,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쌀, 밤, 대추,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특히, 작년 추석의 경우 공급물량 확대 이전일(8.30일) 대비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⁴⁾한 것과 비교하여 이번 설에는 1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성수품 일일물가지수도 1.27일 기준으로 조사 시작일(1.10일) 대비 1.3% 하락하는 등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1월 물가상승세 둔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추, 무, 배는 양호한 작황과 공급물량 확대⁵⁾ 등을 통해 1.5일 대비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쌀, 밤, 대추도 생산량 및 저장량이 충분하여 1.5일 대비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한우설도)·돼지고기(삼겹살)·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수수료 지원⁶⁾과 할인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1.5일 대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계란은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⁷⁾하였으나, 큰 피해없이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1.21일 기준으로 개당 148원이던 계란 산지가격이 개당 141원으로 7원 인하되는 등 가격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4) 무, 소돼지·닭고기, 계란, 쌀, 밤, 대추,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5) (배추) 2,550톤(전년비 51.8%↑), (무) 4,080톤(전년비 47.8%↑), (배) 12,500톤(전년비 30.2%↑)

6) (돼지) 상장·도축수수료 마리당 최대 2만원 지원(1.17~1.29일)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마리당 15만원 지원(1.24~1.29일)

7) 경기 화성(1.23일 2건), 충남 천안(1.25일 1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주요 대중성 어종 또한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설 명절 전 공급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감의 경우 명절을 앞두고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해보면 17.1% 낮은 가격 수준⁸⁾입니다.

정부는 명절 전 성수품가격 안정에 집중한데 이어
공급확대 및 할인행사가 종료되는 설 이후에도
가격안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한파 피해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단기적인 수급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분야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정확한 가격 조사를 위해 조사품목을 확대·구체화⁹⁾함과 동시에
가격 결정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수급 안정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 석유류·내구재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두 번째 안건은 석유류·내구재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석유류·내구재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8) 사과 가격(1.27일 기준) : (전년비) △17.1%, (1.5일 대비) 5.4%↑

9) 수산물 가격 조사 품목 : (현행)16품목 22종류 → (개선)16품목 40종류(조사규격 다양화)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와 공급자 영향력 크기 등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도 있는만큼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면서,
유류세 인하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휘발유, 경유, 차량용LPG 등 석유류의 수급은
현재, 월평균 약 8천만 배럴의 원유(原油)를 차질없이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가격도 작년 11월 시행된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조치 이후
유류세 인하분이 100% 이상 반영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비롯한
산유국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용 LPG 국내가격은
매달 변경되는 국제가격이 다음 달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1월 국제가격¹⁰⁾ 하락으로 2월 국내가격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제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가칭,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신설하는 등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체제를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효과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10) 사우디 기간계약가격 기준(\$/ton): ('21.10월)795 (11)830 (12)750 ('21.1월)710

차량용 LPG 1월 국제가격 하락은
리터당 28원 하락효과(환율 1,200원/\$ 가정)가 예상되며,
2월 1일 결정되는 2월분 국내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 소통,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고,
알뜰주유소 전환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하여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체감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는
업체 소통을 기반으로 특이동향을 점검한 결과,

가전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제품들의 가격도 안정적이지만,
프리미엄 제품 비중확대 등으로
평균 판매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체감가격이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수급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이
작년말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어
'22년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 가격은 신차의 경우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경차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
지난 4년간 동결되어온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기획하여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하여
민관합동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¹¹⁾를 지속 운영하여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경쟁촉진방안 】

세 번째 안건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경쟁촉진방안입니다.

최근 물가상방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¹²⁾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육계(肉鷄), 핸드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의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재제에 착수한 바와 같이

11) 주재관, 완성차·부품사 및 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

12) 사업자가 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판매자들의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

올해도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혐의 확인시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민원 등을 통해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가 부처책임제에 속한 각 부처들이
소관분야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공정위에 공유하여 조사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경쟁 압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판매 수수료 등 거래실태를 발표하여
납품·입점업체가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발적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즉시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숙박앱 등
주요 중개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플랫폼간 수수료 경쟁압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법 통과 이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들이 접근가능한 정보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구조적 차원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①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창업·재창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②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방안,
③지역사업 추진시 참여대상업체 범위를
해당지역 외로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를 2월내에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독과점 요인, 거래구조, 경쟁여건 등을 담은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함으로써
가격인상요인 파악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이후에도 주요 생활밀접품목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2

주요 품목 가격 동향(16대 성수품 + 쌀, 1.27일 기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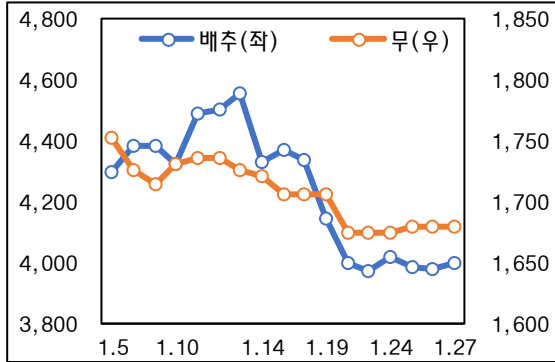
| 구분 | | 가중치 | 1.27일 가격 | 1.5일 가격 | 1.5일 대비 | 전월 가격 | 전월비 | 전년 가격 | 전년비 |
|------------------------|--------------------|------|-------------|------------|------------|----------|-------|----------|-------|
| 16 대 성 수 품 | 배추 (1포기) | 1.5 | 3,998 | 4,302 | △7.1 | 4,102 | △2.5 | 3,116 | 28.3 |
| | 무 (1개) | 0.7 | 1,680 | 1,753 | △4.2 | 1,790 | △6.1 | 1,986 | △15.4 |
| | 사과 (후지 10개) | 2.6 | 27,239 | 25,846 | 5.4 | 26,077 | 4.5 | 32,861 | △17.1 |
| | 배 (신고 10개) | 0.6 | 34,962 | 36,957 | △5.4 | 36,133 | △3.2 | 46,662 | △25.1 |
| | 소고기 (한우설도 100g) | 8.8 | 4,988 | 5,156 | △3.3 | 5,157 | △3.3 | 4,839 | 3.1 |
| | 돼지고기 (삼겹살 100g) | 10.6 | 2,305 | 2,501 | △7.8 | 2,684 | △14.1 | 2,108 | 9.3 |
| | 닭고기 (도계 1kg) | 1.6 | 5,087 | 5,204 | △2.2 | 5,105 | △0.4 | 5,867 | △13.3 |
| | 계란 (특란 30개) | 2.7 | 6,181 | 6,288 | △1.7 | 6,361 | △2.8 | 6,959 | △11.2 |
| | 밤 (1kg) | 0.2 | 5,890 | 6,300 | △6.5 | 6,300 | △6.5 | 6,500 | △9.4 |
| | 대추 (건대추 1kg) | - | 16,880 | 17,080 | △1.2 | 16,880 | 0.0 | 18,000 | △6.2 |
| | 명태 (냉동 1마리) | 0.8 | 2,510 | 3,410 | △26.4 | 3,410 | △26.4 | 2,532 | △0.9 |
| | 물오징어 (냉동 1마리) | 1.2 | 3,590 | 3,773 | △4.9 | 3,812 | △5.8 | 4,097 | △12.4 |
| | 갈치 (냉동 1마리) | 1.3 | 4,070 | 4,755 | △14.4 | 4,716 | △13.7 | 5,848 | △30.4 |
| | 고등어 (냉동 1마리) | 2.3 | 2,372 | 2,800 | △15.3 | 2,800 | △15.3 | 2,619 | △9.4 |
| | 조기 (냉동 1마리) | 0.9 | 1,669 | 2,275 | △26.6 | 2,218 | △24.8 | 2,773 | △39.8 |
| | 마른멸치 (건멸치 1kg) | 0.7 | 19,416 | 25,658 | △24.3 | 23,815 | △18.5 | 28,606 | △32.1 |
| 기타 | 쌀 (20kg) | 5.5 | 52,650 | 54,868 | △4.0 | 55,080 | △4.4 | 60,403 | △12.8 |

※ 농축산물 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기준, 수산물 가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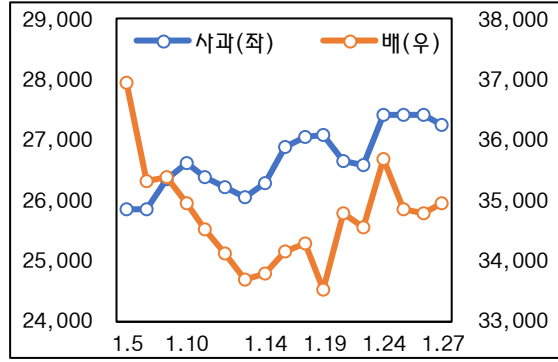
붙임 3

1.5일 이후 「16대 성수품 + 쌀」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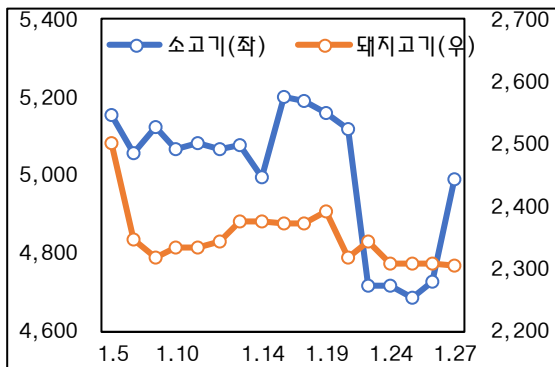
배추(1포기)·무(1개)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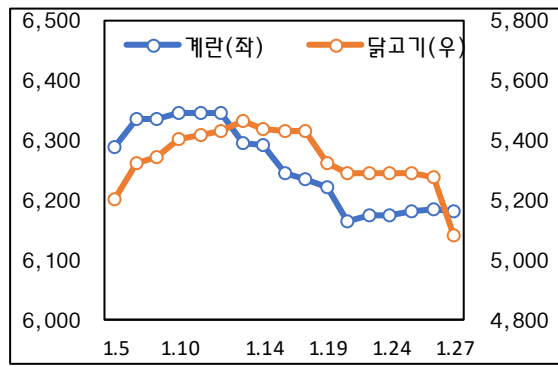
사과(후지 10개)·배(신고 10개)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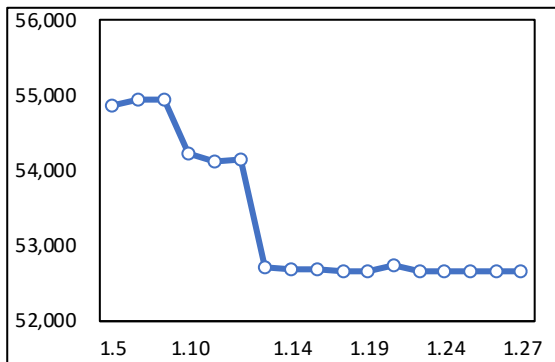
소(한우설도 100g)·돼지고기(삼겹살 100g)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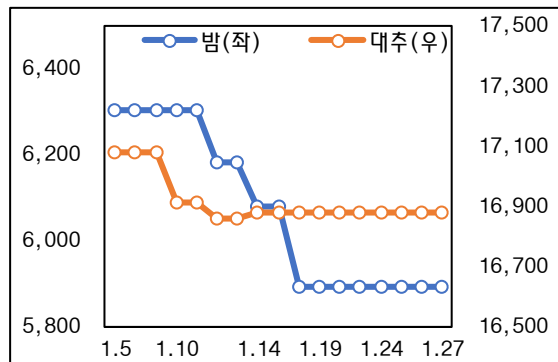
계란(특란 30개)·닭고기(1kg)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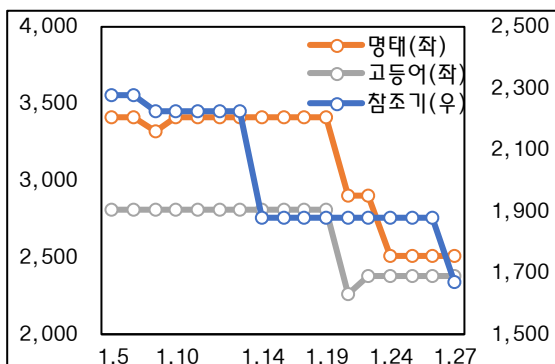
쌀(20kg) 가격 동향



밤(1kg)·대추(1kg) 가격 동향



명태·고등어·참조기(냉동 1마리) 가격 동향



갈치·오징어(냉동 1마리)·마른멸치(1kg) 가격 동향

